

<한솔화학의 과산화수소 사업>

장기적인 포석으로 증설 추진중!

물과 산소로 분해돼 2차적 오염이 전혀 없다는 장점으로 90년대초 세계적인 신증설이 이루어진 과산화수소시장이 근래들어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또 한솔화학이 그룹차원에서 골프장 인수 등으로 실추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영우화학의 과산화수소 생산능력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련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산화수소 공급과잉 지속

국내에서 과산화수소 시장은 동양화학, 영우화학에 이어 93년 4/4분기부터 신규참여한 한화종합화학으로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환경공해와 전혀 무관한 과산화수소를 염소 계통 표백제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 국내 과산화수소 시장이 다소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참여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한화종합화학의 경우 수소가 남아도는 자체의 이점이 추가돼 신규참여로 인한 당장의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적극적인 사업공략을 펴고 있는 한화종합화학은 94년 9월28일자로 독일 우데와 과산화수소 관련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해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같이 한화종합화학이 우데와 손을 잡게 된 배경에는 과산화수소가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데다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염소 규제를 비롯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강화로 과산화수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자체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국내 과산화수소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로 생산능력은 연간 6만5000톤인데 비해, 수요는 연간 3만2500톤으로 각 기업별 평균가동률은 6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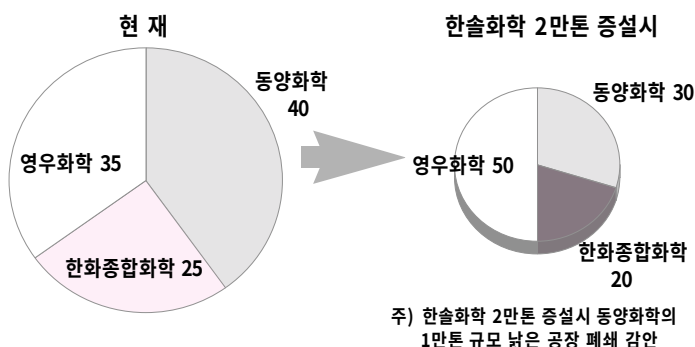
국내 과산화수소 3대 기업의 생산현황을 보면, 동양화학은 연간 생산능력 3만톤 규모로 40%에 달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우화학이 35%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연간 생산능력은 2만톤 규모이다. 후발주자로 참여한 한화종합화학의 시장점유율은 25% 정도로 연간 생산능력은 1만5000톤이다.

동양화학의 93년 생산은 1만8000톤에 달했으며 94년 상반기 생산은 9500톤으로 이중 3500톤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3년 1만3000톤의 생산실적을 보인 영우화학은 94년 상반기 내수 4000톤, 수출 1800톤의 실적을 보였다. 이같은 추세로 보아 94년은 내수 9000톤, 수출 4000톤 등 93년과 거의같은 1만3000톤의 생산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93년 4/4분기 1000톤의 생산실적을 올리며 국내 과산화수소 시장에 신규 참여한 한화종합화학은 94년 상반기 내수 2000톤, 수출 2000톤의 실적을 보였다. 이에따라 94년 전체 생산실적은 내수 4000톤, 수출 4000톤 등 8000톤을 보일 조짐이다.

【그림】 과산화수소 시장점유율



【표】 과산화수소 수급전망

(단위 : M/T)

구 분		1992	1993	1994
생 산	동양화학	17,000	18,000	18,000
	영우화학	12,300	13,000	13,000
	한화종합화학	-	1,000	8,000
수 입		6,808	10,204	10,000
수 출		17,533	18,193	22,000

동남아시아 시장 주도권 장악

과산화수소의 세계시장 규모는 연간 생산능력 152만톤, 수요는 118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과산화수소시장은 6만5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분을 공급하고 남아도는 물량을 수출쪽에 치중,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과산화수소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91년 1만4073톤, 92년 1만7533톤, 93년 1만8193톤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4년 7월까지 수출 누계가 1만5849톤에 달하고 있어 올해 수출 예상량인 2만톤은 쉽게 달성될 조짐이다.

수출되는 과산화수소는 대부분 50% 베이스 기준인데 방글라데시의 경우 35%(물 65%, 과산화수소 35%), 파키스탄은 35%와 50%를 병행해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홍콩으로 93년 7752톤, 94년7월까지 5202톤의 수출실적을 보였다. 다음으로 필리핀이 93년 2770톤, 94년7월까지 2831톤에 달했다.

파키스탄은 93년 4166톤, 94년 7월까지 2295톤을 기록했으며, 싱가포르 93년 1805톤, 94년7월까지 1042톤을 보였다. 나머지 국가들은 수출실적이 연간 1000톤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주수출국가들이 동남아 지역에 밀집돼 있으며, 한국의 수출물량이 많기 때문에 동남아국가들은 한국의 과산화수소 시장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은 91년 6759톤, 92년 6808톤, 93년 1만204톤을 보여 근래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94년7월까지 이어져 수입누계가 6541톤으로 93년 수입실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과산화수소는 중국산과 일본산이 거의 양분돼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산은 가격면에서 일본산은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의 경우 93년 5339톤, 94년7월까지 3919톤이 들어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품질면에서 균일화되지 않으며 순도가 다소 떨어져 안정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이 수입된 일본산은 93년 4845톤, 94년7월까지 2592톤의 수입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산은 35% 베이스 기준, 일본산은 30% 베이스가 수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산은 주로 고순도 분야 반도체용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이부문 국산화 진척이 빨라 현재 국산이 30~4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지속적인 시장개척과 보조를 맞춰 고부가가치 고순도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를 통한 2차 유도품 생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산화수소 사업성 어두워 ...

영우화학을 인수한 한솔화학은 기존 영우화학의 과산화수소 생산능력인 연간 2만톤에서 배에 달하는 4만톤으로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사업추진의 배경에는 한솔그룹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경영 및 과산화수소 시장에서 선두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넓은 의미로는 동남아시아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과산화수소 시장에 대한 영역을 확대, 한솔그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가장 큰 과산화수소 수요처인 한솔제지의 안정적 공급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한솔제지는 연간 7000~8000톤에 달하는 과산화수소를 소비하는데 공급선을 기존의 동양화학에서 영우화학으로 한화종합화학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제지분야의 과산화수소 및 가성소다 사용량도 무시할 수 없는 독특한 환경으로 한솔화학은 한화종합화학의 가성소다 공급선 확보라는 미명하에 한화종합화학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미묘한 역학구조로 얽혀있다.

한편, 국제 펄프가격의 상승으로 재생용지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맞물려 국내 제지업계간의 신·증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4년말로 예정된 신호제지의 18만톤 규모 증설로 인해 연간 3000톤가량의 과산화수소 신규 수요가 발생하며, 대한제지도 3만톤에서 20만톤으로 증설, 약 2500톤의 자연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산화수소의 내수가격 동향을 보면, 93년 35% 베이스 기준 톤당 캔이 49만원, 탱크로리가 46만5000원에서 94년 10월 현재 캔이 93년대비 1만2000원 하락한 47만8000원, 탱크로리가 2만7000원 하락한 43만8000원을 형성중이다.

이러한 국내 과산화수소 시장상황으로 볼때 한솔화학의 2만톤 증설계획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화학저널 1994/11/1>